

기밀·접대비 15.7% 늘어

지난해

90.4.7

12월 결산법인 경상이익의 4.0%나 차지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지난해 전반적인 영업실적 부진 속에서도 대외교섭비용인 기밀비 및 접대비 지출을 크게 늘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대신경제연구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4백60개사를 대상으로 '기밀비 및 접대비 기부금 등 제비용지출 현황'을 분석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해 지출한 기밀비와 접대비 합계는 모두 1천3백61억2천만원으로 88년의 1천1백76억4천만원에 비해 15.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밀비와 접대비가 경상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년의 2.9%에서 지난해에는 4.0%로 1.1%포인트 높아졌다.

또 기부금의 경우는 지난해 1천9백34억4천만원으로 88년의 2천1억7천만원보다 3.4% 줄어 들었으나, 경상이익에서 차지하는 기부금지출액 비중은 88년의 4.9%에서 지난해에는 5.7%로 역시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금속광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기밀비·접대비 지출규모가 늘어났으며 특히 나무제품·전기기계·철강·조립금속 업종에서 증가폭이 컸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51억1천2백만원을 기밀비·접대비로 지출, 1위였고 이어 △포항제철 31억2천8백만원 △삼성물산 30억4천만원 △기아자동차 20억4천3백만원 △럭키금성상사 19억5천5백

만원 등의 순서였다.

한편 기부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포항제철로 6백48억7천만원이었고 이어 한국전력 86억9천8백만원, 대한항공 63억3천4백만원, 삼성전자 64억4백만원, (주)대우 42억5천3백만원 순이었 다.

이 금은 가공되지 않은 금괴로 서 순도가 99.99%이며 가격은 국제금시장에서의 시세와 연동돼 매일 아침 고시된다.

금은 1g~1kg까지 모두 10종류가 시판되며 매입자에게는 (주)선경과 스위스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가 주어진다.

표> 1989년 12월 결산법인 기밀비·접대비 지출 현황

△ 기밀비·접대비 지출액 100억 이상

회 사 명 지출액 (단위: 백만원)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삼성물산 30,400 대우 42,533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삼성전자 64,400 포항제철 31,288

기아자동차 20,433 대우 42,533

삼성물산 30,400

100억 미만 100억 이상